

국교 두절 하, 朝鮮·琉球 양국 사절단의 北京 접촉

夫馬進*

- | | |
|-------------------------------|------------------------------------|
| I. 머리말 | III. 金尙奎의 『啓下』-류큐 사신의 방문 |
| II. 국교 두절 하, 朝鮮·琉球 양국의 접촉과 대응 | IV. 姜浩溥의 『桑蓬錄』-제주민의 송환문제
V. 맺음말 |

• 국문초록

조선과 류큐(琉球)는 17세기 중반 이후부터 메이지까지 국교가 두절되어 있었다. 본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 류큐 양국에서 중국에 파견한 朝貢使節이 북경에서 어떻게 접촉을 하였는지를 밝혀봄으로써 양국의 국교 두절이라는 문제를 살펴보고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1724년 서장관이었던 김상규가 기록한 『啓下』와 姜浩溥의 연행록인 『桑蓬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첫 번째 사료를 통해서, 조선측은 류큐에 대해 교린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는 것과 사신 왕래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조선측이 류큐와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반해 류큐는 조선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사료에서는 1728년 류큐에 표류해온 제주민의 송환 문제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본고가 문제삼고 있는 것은, 표류민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표류민과 류큐인 사이의 대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류큐는 조선 표류민을 적극 송환한 것에 반해, 조선측은 류큐 표류민을 송환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고는 조선과 류큐의 위와 같은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류큐·중국 삼국의 관계뿐만 아니라, 일본을 포함하여 고찰하여야만 이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주제어

조선, 류큐(琉球), 朝貢使節, 北京, 啓下, 桑蓬錄

* 日本 京都大學 大學院 文學研究科 教授.

I. 머리말

류큐(琉球)가 사츠마(薩摩)의 침략을 받은 것은 1609년의 일이다.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明朝 중국과 조선 모두 “일본이 류큐를 併呑하였다.”고 보고,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이후의 외교를 모색하였다. 중주국인 명조 중국은 일본과 국교가 없었으므로, 류큐가 일본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모른 채 하며’ 朝貢을 받고 일본을 冊封할 수 있었다. 조선도 처음에 이를 본떠, 조선 역시 일본과는 국교가 두절되었으므로, 류큐가 일본에 병합된 상태라는 것을 ‘모른 채 하며’, 交隣 관계를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지하면 되었다. 조선과 류큐 양국이 적어도 1634년까지는 교린 관계에 있었다는 점, 다시 말해 국교가 유지되었다는 점은 류큐의 史料인 『歷代寶案』에 수록된 문서, 즉 조선 국왕이 류큐 국왕에게 보낸 咨文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후, 양국의 국교 두절 상태는 류큐가 일본 메이지 정부(明治政府)에 ‘정식으로’ 병합될 때까지 일관되게 지속되었다. 일찍이 16세기 초까지 그러하였듯이, 通信使를 海路를 통해 파견하지 않는 일에 그치지 않았다. 1634년까지 그랬듯, 양국의 使節이 北京에서 각국 국왕의 咨文을 서로 교환하고 교린 관계에 있음을 서로 확인하는 일까지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지금까지 전근대 동아시아에서의 국제 관계를 살펴볼 때에 朝貢 시스템론이나 冊封體制論의 영향이 매우 컸다. 이와 같은 조공 시스템론이나 책봉체제론에서 따르면, 조선도 류큐도 서로 비슷비슷한 조공국이자 책봉국이었다. 그런데 왜 무슨 이유로 양국의 국교가 두절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이 이후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인지, 이를 문제시하는 시각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작년, 1636년에 조선이 일본에 통신사를 보내 정식으로 국교를 재개하였다는 점, 그리고 통신사를 파견하게 되면 중국과 달리 류큐가 일본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더 이상 ‘모르는 일’로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 등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였다.¹⁾ 오늘 보고의 가장 큰 목표는 조선·류큐 양국에서 중국에 파견한 朝貢使節이 북경에서 어떻게 접촉을 하였는지

밝혀 봄으로써 양국의 국교 두절이라는 문제를 다시 살펴보는 데 있다. 여기서는 중국 淸朝가 반석에 오른 18세기 前半 무렵에 저술된 사료 두 가지를 중심으로 소개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II. 국교 두절 하, 朝鮮·琉球 양국의 접촉과 대응

朝鮮과 琉球 사이에 국교 두절이 지속된 원인에 대해, 나는 1717년(康熙 56년·肅宗 43년)에 조선의 궁정에서 있었던 논의를 소개하면서 대략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류큐는 1698년(강희 37년)에 이어, 1716년에도 조선 표류민을 중국을 경유하여 송환하였다. 조선 정부에서는 이 당시 국교가 두절된 류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논의가 있었다. 提調인 閔鎭厚는 류큐에 감사의 咨文을 보내야 한다고 하며, 일찍이 明朝 시대에 자문을 보내 감사의 뜻을 전한 일이 있는 이상, 淸의 禮部 역시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에 반해 宋相琦는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다. 송상기는 조선과 류큐가 같은 ‘藩服國’이므로 서로 문서를 주고받으면 ‘외교의 戒’, 다시 말해 淸朝라는 宗主國을 통하지 않고 사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북경의 예부에서 “明代에는 류큐와 咨文을 주고받았다.”라는 이유로 과연 설득에 응할 것인가? 라고 반박하였다. 조선 국왕 숙종은 이와 같은 대립된 의견 가운데 송상기의 반대 의견을 채용하여 류큐에는 지금까지 하던 대로 자문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즉 국교 두절을 지속하기로 한 것이다. 그는 그 이유로, 만약 자문을 보내면 “뜻밖의 걱정거리(意外之慮)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였다고 한다.²⁾

1) 夫馬進, 「一六〇九年, 日本の琉球併合以降における中國・朝鮮の對琉球外交—東アジア四國における冊封, 通信そして杜絶」, 『朝鮮史研究會論文集』 46, 朝鮮史研究會, 2008, 29면; 「1609년 일본의 류큐 합병 이후 중국, 조선의 對 류큐 외교—동아시아 4국의 책봉, 통신 그리고 두절」, 『梨花史學研究』 37, 梨花史學研究所, 2008, 32면.

나는 이 사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다. 숙종은 “뜻밖의 걱정거리(意外之慮)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며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면 보내지 않는 것이 낫다.”고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무엇을 걱정한 것인지, 무엇이 두려워 류큐에 감사의 자문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인지, 전혀 밝히지 않았다. 송상기의 반대 의견만을 보면, 숙종도 청조에서 반대할 지도 모른다고 걱정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종주국의 대응에 대한 두려움, 우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선 이 해석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은, 그가 “뜻밖의 걱정거리(意外之慮)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송상기는 청조에서 조선측의 청을 거부할지도 모른다, 이를 미리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므로, 실제로 청을 넣었다가 거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뜻밖의” 일도 아니며 그 무엇도 아닌 것이다. 만약 이 말이 숙종의 말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라면, 그가 말하는 “뜻밖의”, 즉 예상 밖의 사태란 류큐와 國書를 주고받아 국교를 재개한 뒤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 무엇이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로 숙종 역시 청조측의 거부를 걱정하였다고 단순하게 해석할 수 없는 이유는 민진후가 “북경의 예부도 비난을 하면서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하였기 때문이다. 본래 청조의 허가를 얻어 자문을 주고받는 것이라면 “외교의 戒”를 범할 리가 없다. 自國의 백성을 류큐에서 구조를 해주어 중국의 福州까지 송환해 주었으므로, ‘禮義之邦’을 자부하는 조선으로서는 국왕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따라서 민진후의 제안이

2) 『備邊司謄錄』 70冊, 숙종 43년 正月 2일, “(提調閔鎮厚曰), 萬曆丙申, 琉球國以漂人還送事, 順付謝咨於我國云. …… 謝咨古事, 既甚明白, 則今番亦宜有送咨申謝之道. …… 既有前例, 禮部亦似無持難不從之事矣.” 『承政院日記』 같은 날 條에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 보인다.

宋相琦, 『玉吾齋集』 卷10, 『請勿送琉球國咨文疏』(『韓國文集叢刊』 171, 민족문화추진회, 418면), “但念皇朝時則視我國猶一家, 凡於朝聘交際之間, 不甚拘禁. …… 若以藩服之國, 自相通書, 以犯外交之戒, 而又要我以傳云爾而或有嗔嘖之言, 則其將以皇朝時亦有此事爲解, 而可以杜彼之說耶. …… 頃於戊寅年, 琉球亦有解送漂人之事, 而其時未聞有謝咨, 豈亦拘於事勢難便而然耶. …… 蓋我國之於日本, 則壤地相接, 信使往來, 卽彼人之所知, 無可諱者, 而琉球則不然, 隔以重溟萬餘里, 萬曆以後近數百年, 曾無通問之事, 今忽修書齎幣, 以示相好之意, 則彼之不致怪持難, 臣不敢必也. 答曰, …… 茲事不無意外之慮, 予意則不如不爲之爲愈也.”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예부의 허가를 얻어, 혹은 예부를 통해 자문을 교환하는 것이라면, 청조로서도 조공국, 책봉국 사이에 '禮'가 오고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자, 또한 王朝의 威德을 한층 빛낼 수 있는 절호의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1717년이라는 해는 三藩의 난이 끝난 지 이미 약 40년 정도 시간이 지난 해이고, 또한 타이완(臺灣)에 근거지를 둔 鄭氏가 투항한 지도 이미 20년 이상이 지난 해로, 청의 國勢는 반석에 올라 있었다. 청조는 조선과 류큐가 모의하여 反淸을 조장할 지도 모른다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과연 청조는 당시 조선과 류큐가 서로 관계를 맺는 것 자체를 위협한 것으로 보고, 이를 의도적으로 저지하였을까? 숙종은 이를 우려하고, 즉 청조측의 반응을 걱정한 결과, 류큐에 자문을 보내고자 하는, 그리고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하는 요청조차 하지 못하였던 것일까?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숙종의 이러한 막연한 불안은 일본의 존재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였다. 다시 말해 조선은 1636년에 通信使를 일본에 파견하기 시작하여 일본을 정식으로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고 국교를 재개하였다. 이 단계에서 류큐가 형식적으로 청조의 조공국, 책봉국이라는 이유로,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지배 아래에 있어 그 속국이었던 류큐와 국교를 재개할 수 있었을까? 대답은 NO이다. 통신사가 파견되면서, 류큐가 일본에 병합된 상태라는 정보는 정부의 고위 관료를 통해 여러 차례 조선에 전해졌다. 또한 1662년, 1663년, 1669년에는 류큐에 표류해 도착한 조선 백성이 일본을 경유해 송환되었다. 조선에서 쓰시마도주(對馬島主)에 보낸 감사의 書狀에서도 '류큐국(琉球國)'이라고 하지 않고 일본의 일개 藩처럼 '류큐(琉球)'라고만 기술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조선은 중국과 달리, 류큐가 일본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일"로 치부하여 국교를 재개할 수는 없었다고 보았다.

이처럼 해석함으로써, 수많은 燕行錄에 기록된 조선 燕行使와 류큐 연행사의 접촉이 어찌서 그토록 기묘할 정도로 데면데면하였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양국의 正使나 副使는 국왕의 대리자로서 북경에 왔던 것이므로, 예부의 명령에 따라 鴻臚寺로 불려가 같은 儀式에 참석하기 위해 리허설을 하면서 친근하게 환담을 나누기 어려웠다. 같은 의식이나 宴席에서도

같은 조공국이자 책봉국으로서 초대되었으면서 그들은 환담을 나눈 흔적이 없다. 양국의 정사·부사는, 예를 들면 午門 앞에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통역관을 통해 정보를 교환한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한 가장 자세한 예를 우리는 兪彥鎬의 연행록에서 찾아 볼 수 있다.³⁾ 1788년(乾隆 53년) 元旦의 일이다. 그러나 이조차 조선측에서 볼 때, 통역관에게 질문하게 하는 내용이므로, 서로 직접 접촉하겠다는 의지는 없었을 것이다. 이들은 국왕의 대리자로서 북경에 왔으므로, 서로 宿舎를 방문하여 인사를 나누는 일조차 없었다.

이 점, 조선에서 수행원으로 연행사에 합류한 자의 입장에서서는 훨씬 편안한 입장이었다. 몇몇 연행록에는 수행원으로 참가한 자 중 몇 명이 류큐 使節의 숙소로 들어가려고 하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현재 확인할 수 있는 한, 1850년(道光 30년·哲宗 원년)에 權時亨이 馬頭의 안내로 실제로 류큐 숙소에 잠입하였다.⁴⁾ 그러나 이들의 행동은 조선 연행사의 수행원들이 종종 러시아 공관에 찾아간 것과 같은 종류의 행동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 목적은 새로운 곳을 방문한다는 관광 목적이었다. 당시 러시아는 조선과 국교도 없었고 표류민 송환 문제와 같이 서로 얽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당시, 류큐는 북경에 유학생을 파견하여 이곳의 國子監에서 수학하였다. 李商鳳의 『北轅錄』에 따르면, 수행원들이 국자감을 참관하던 중 이곳에서 琉球官學教習이라는 지위에 있던 중국인과 필담을 나눈 일이 인연이 되어, 琉球官生(유학생)이었던 蔡世昌과 鄭孝德이 조선측 숙소, 즉 玉河館을 방문하기에 이르렀다.⁵⁾ 이들 류큐 관생들은 이상봉의 부친, 즉 이 당시 燕行使 書狀官과도 필담을 나누었으며, 이들 사이에는 어떠한 제약도 위화감도 찾아 볼 수 없었다. 류큐 관생 두 사람은 조선 연행사 正使와도 만난 것으로 보인다. 1760년(건륭 25년) 1월의 일이다. 이와 같은 만남은 류큐 관생이 청조 관리 아래에 있는 국자감생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으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상당히 많은 연행록이 전해지고 있다. 그 가운데에는 조선 연행사가

3) 兪彥鎬, 『燕行錄』, 正月 1日, 『燕行錄選集』 下,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62, 1176면.

4) 權時亨, 『石湍燕記』, 12月 25日, 林基中 編, 『燕行錄全集』 91, 동국대 출판부, 2001, 42면.

5) 李商鳳, 『北轅錄』, 正月 14日, 『燕行錄選集 補遺』 上,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8, 845면.

류큐 사절과 조우하였다는 기록도 많고, 그 중에는 그들과 필담을 나누었다는 기록도 있다. 예를 들면, 이미 소개한 撰者 미상인 『燕行雜錄』이 그것이다.⁶⁾ 이는 1823년(도광 3년)의 기록이다. 그러나 이를 포함하여 조선 사절과 류큐 사절의 해후 혹은 접촉은 전체적으로 보아 매우 데면데면하며 냉담하였다. 또한 조선 연행사의 정사, 부사 그리고 서장관이 류큐 사절의 숙소를 방문하였다는 기록은 현재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역으로 류큐 사절의 정사나 부사가 조선 사절의 숙소를 방문한 기록 역시, 매우 예외적인 일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단 한 건뿐이다. 더구나 그 한 건은 이 일이 얼마나 이상한 일이며 예외적인 일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할 수 있다.

Ⅲ. 金尙奎의 『啓下』—류큐 사신의 방문

이는 1724년(擁正 2년), 書狀官이었던 金尙奎가 귀국 후 국왕에게 보고한 내용이다. 이른바 ‘聞見事件’이라는 건이다. 중요한 부분을 옮겨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琉球國의 正使와 副使가 방문하겠다는 연락도 없이 아침에 갑자기 숙소인 玉河館의 안마당까지 들어와서 이들을 응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측 부사인 李眞儒는 먼저 “貴國 류큐국과 우리 조선 사이에는 交隣 관계가 없고, 使者의 왕래도 없다. 오늘 뜻밖에도 중국에 사신으로 와 해후하니 매우 다행이다.”라는 의미를 담은 말을 글로 표하였다. 이에 류큐측 정사는 “나는 류큐 국왕의 叔父이다.”라고 밝히고, 또한 “尊顏을 뵈게 되어 매우 기쁘다. 云云”을 직접 썼다. 매우 훌륭한 필적이었다. 그리고 한동안 이렇다 할 말도 없이 있다가, 돌연 자리를 떴다. 행동이 常軌를 벗어났으며 예의가 경솔하여 매우 심히 놀랐다…….⁷⁾

6) 夫馬進, 앞의 2008 논문, 24면.

7) 金尙奎, 『啓下』(서울대 규장각 소장), “擁正二年十二月, 初七日丙子, 晴, 留玉河館, 琉

여기서 류큐국 정사로 등장한 인물은 翁國柱이다. 『歷代寶案』 및 清朝檔案에 따르면, 그는 류큐 국왕의 장인(어머니의 숙부)이었다고 하며, 조선측의 이 사료와 일치한다.⁸⁾ 옹국주 일행은 雍正帝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 이 무렵 북경에 체류 중이었다.

이 짧은 사료는 당시 조선·류큐 양국의 관계에 대해 실로 많은 것을 알려 준다. 우선 첫째, 조선측은 류큐에 대해 “교린 관계를 맺지 않았으며 사자의 왕래도 없다.”고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이 북경에서 종종 류큐 사절과 조우하면서 매우 데면데면하게 접촉한 것은 이러한 인식에 근거한 의도적인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이 서장관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갑자기 조선 속소에 들이닥친 류큐국 정사와 부사에 대한 조선측의 당혹감과 불쾌감을 읽을 수 있다. 국교가 없는데도 상대국의 공관을 방문해 온 것은 조선측에서 생각할 때 “매우 심히 놀라운 일”이었으며, 예의를 모르는 행위였다. 여기에 “매우” 그리고 “심히”라는 부사를 거듭 사용하고 있는 점도 이 때의 방문이 “매우” “심히” 이상한 일이며, 예외적인 일이었음을 말해준다.

이 당시, 조선측에서는 정사가 아니라 부사 이진유가 손님맞이에 나선 것도 아마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또한 이때의 이진유의 말과, 그리고 이어지는 “한동안 이렇다 할 말도 없이 있었다.”라는 정황 묘사를 통해, 류큐와는 애써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조선측의 명확하고도 강경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둘째, 이 사료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중국 清朝에서 양국 사절이

球國兩使臣，無來見之聲息，而朝後忽直到庭內，不得不出接。其衣服制度，與清人無甚相遠，而歛髮不剃頭，以紫黃色錦段結之，恰似我國女人裏巾貌樣，語音則非清非漢，如倭語云，而亦不了了。副使臣李眞儒，先以貴國與我國無交隣之事，冠蓋不相通，今日忽與使華邂逅，幸甚之意書示，則所謂上使者，稱以其國王外三寸，又手寫今日得見芝宇，甚慰鄙懷等語，筆法頗麗，少頃無他酬酢，而忽然起去。舉止之顛，禮貌之輕率，極甚可駭。譯輩以爲與倭風相同云。”

8) 『歷代寶案』譯註本 3冊，沖繩縣 南風原町，沖繩縣教育委員會，1998，445면；『清代中琉關係檔案五編』，北京：中國檔案出版社，2002，35면. 그리고 『歷代寶案』譯註本 3冊，294면에는 ‘王舅’에 “관직명. 본래 왕의 모친의 형제를 의미하는 친족의 호칭에서 유래한 것일까?”라는注가 달려있다.

접촉하는 일에 대해 특별히 꺼리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양국 사절의 접촉을 저지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 당시 조선 사절의 숙소였던 옥하관을 관리하던 자는 會同館提督이라는 관료로, 회동관제독은 이 숙소에 대한 출입을 엄중히 체크하였다. 이때보다 한 해 전, 즉 1723년에 연행사 중 한 사람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 제독과 중국측 통역관이 군인을 이끌고 옥하관 문을 경비하여 마음대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⁹⁾ 이 후 수십 년 지나면 제독의 관리는 다소 느슨해지기는 하지만, 옹정 2년 당시에는 매우 엄중하였다. 이 자료에 기록된 대로, 이 당시 류큐 사절은 류큐의 의복을 입고 방문하였으므로, 당연히 이들이 외국인이라는 것은 한눈에 알아 볼 수 있었다. 이들 류큐 사절들은 제독의 검문을 받은 결과, 류큐 사절이라는 명확한 신분을 확인받고 자신들의 방문을 알려 분명 옥하관에 들어가는 허가를 받았을 것이다. 류큐측 숙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류큐 숙소에 출입할 때에도 분명 제독에게 그 행선지를 알리고 허가를 받았을 것이다. 즉, 류큐국 정사와 부사가 조선측 숙소를 방문한다는 것은 양측 숙소에서 허가를 받았음을 보여 주며, 이때에 양국 사절의 접촉을 저지하려는 청조의 특별한 의도는 찾아 볼 수가 없다.

셋째, 이 사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조선측이 류큐와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반해, 류큐측은 오히려 조선과 관계를 맺기를 바라고 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점을 알 수 있다. 물론, 정사인 옹국주가 무슨 의도로 갑자기 조선측 숙소를 방문하였는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양국 중 조선측이 류큐와 관계 맺는 일을 매우 꺼려했던 반면, 류큐측은 오히려 관계 맺는 일에 적극성을 보였다는 사실은 앞으로 살펴볼 양국의 표류민 송환 정책의 차이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9) 黃巖, 『癸卯燕行錄』, 『燕行錄全集』 37, 동국대 출판부, 280면.

IV. 姜浩溥의 『桑蓬錄』—제주민의 송환문제

다음으로 소개할 것은 1728년(옹정 6년)의 사료이다. 이 해 正月 9일, 류큐에 표류해 왔던 조선 제주 백성들이 북경에 도착하였다. 류큐에서 중국 福州까지 이들을 송환해 온 류큐 조공사절도 같은 날 북경에 도착하였다. 이 당시 조선측의 대응, 류큐측의 대응, 그리고 중국측의 대응에 대해 상세히 기록한 자료는 姜浩溥의 여행록인 『桑蓬錄』이다. 이하 『상봉록』을 바탕으로 양국 사절의 접촉, 그리고 양국의 관계를 고찰하면서 중요한 점만을 지적하고자 한다.¹⁰⁾

정월 9일에 북경까지 송환되어 온 조선인 9명은 모두 제주 백성이었다. 다음날인 10일, 마침 북경에 체류 중이던 조선 연행사는 이들 제주 백성 9명이 전날 북경에 도착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洪萬運과 韓守岳 두 사람을 제주 백성 9명이 머무는 류큐측 숙소로 보내 제주 백성 9명과 만나도록 하고 류큐 사신에게 謝意를 전하도록 하였다. 이 두 사람 중 홍만운은 『桑蓬錄』에 몇 차례 譯官으로 등장하는 인물이다. 사실 홍만운은 일찍이 1717년에 조선 정부에서 류큐에 감사의 咨文을 보내야 할 지 말아야 할지를 논의하였을 때, 자문을 보내는 대신에 齎咨官으로서 북경에 파견된 인물이다.¹¹⁾ 이 당시 官名

10) 姜浩溥, 『桑蓬錄』 권8, 『燕行錄選集補遺』上,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8, 622면上.
“戊申(擁正六年, 英祖四年) 正月初十日辛酉, 晴. 留義州時, 譯官卞仲華入燕還言, 濟州人漂到于琉球國. 琉球國付送於北京貢使. 我使行到北京, 則當逢着云矣. 今日始聞濟州漂海人與琉球使臣, 昨日同入北京, 留在於三官廟云. 行中使洪萬運·韓守岳往見漂海人, 又入見琉球使臣, 謝其救濟人命辛勤率來之意. 余初欲同往, 見琉球人之狀矣. 更思之, 則有若薄其身者然, 迺止不往焉. 洪萬運往見而還, 言漂海人之居住人名及數, 呈文禮部, 禮部奏聞于皇帝, 受皇旨, 而後當送于我使行所在處云. 又言往三官廟琉球使所在處, 則彼亦有提督守之. 以入見琉球使而致謝之意, 請于提督. 提督曰, 汝輩豈可自屈而入見之乎. 於此召見之可也. 蓋其意重朝鮮人, 而輕琉球也. 卽通于琉球使. 琉球使具冠服出現, 云云.”

11) 『同文彙考』原編 卷66, 漂民, 국사편찬위원회, 『韓國史料叢書』24, 1978, 1256면上.

이 司譯院正이었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는 역관이였다. 1728년 때에도 홍만운을 파견한 것은 그가 사무 처리에 능하고 게다가 역관이었으므로 여러모로 편리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당시 북경에는 조선 사절로서 正使, 副使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사나 부사가 직접 류큐 사절의 숙소로 가서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역관을 파견한 것이다. 여기에도 조선측의 의지가, 류큐와는 정식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나타나 있다. 예를 들면, 司譯院正은 정3품의 관직으로, 분명 관료이기는 하다. 그러나 잘 알고 있듯이, 정사, 부사, 書狀官이 양반 출신인데 반해, 사역원정은 中人 출신으로 신분이 전혀 다르다.

『상봉록』의 저자인 姜浩溥는 부사의 수행원으로서 이번 연행사에 합류하였다. 이 연행록을 살펴보면, 강호부는 무엇이든 보겠다고 하는 호기심이 가득한 인물이었다. 그에게는 역관이 류큐 사절의 숙소를 방문하게 되므로, 이들 역관들과 동행한다면 류큐측 숙소로 들어가 볼 수 있는 두 번 다시 없는 기회였을 것이다. 처음에 그는 역관들과 함께 갈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는 가지 않았다. 그는 “니를 낮추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有若薄其身者然).” 그래서 가지 않았다고 스스로의 판단을 기록으로 남겼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류큐 사절의 숙소였던 三官廟에서도 提督이 경비를 보며 출입을 체크하였다. 홍만운이 “류큐 사절을 만나 謝意를 전하고 싶다.”라는 방문 이유를 제독에게 고하면, 제독은 “그대들이 스스로 급혀 入見할 필요는 없다. 여기로 그들을 불러 만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의를 주었다. 이를 볼 때 류큐 사절은 조선측으로부터도, 그리고 중국측으로부터도 홀대를 받는 존재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류큐 사절은 冠服을 갖추어 입고 조선 역관들과 만난 것이다.

한편 정월 17일, 禮部尙書가 입회한 가운데 조선측 역관을 매개로 제주 표류민 9명에 대한 심문, 즉 청조측의 조사가 있었다.¹²⁾ 2월 12일, 예부는 조선 사절의 숙소인 玉河館에 표류민 송환과 관련한 문서를 보내고, 9명을 이송해

12) 姜浩溥, 『桑蓬錄』 권8, 『燕行錄選集補遺』 上,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8, 624면下, “正月十七日戊辰, 禮部招所任譯官去, 又招濟州漂人九名於琉球國使館, 尙書以下皆會, 使譯官傳語, 詳問其姓名居住漂海始終, 一一記之, 然後將以奏聞也.”

주었다. 표류민 9명이 옥하관에 도착하자, 이번에는 조선측의 심문이 시작되었다. 표류민의 대답은 중국측의 심문 때 말한 대답과 거의 같았으나, 다만 한 가지, 매우 충격적인 대답, 주목할 만한 대답이 있었다.

그것은 이들 표류민과 류큐인 사이의 대화 내용이다. 류큐인은 이들 표류민에게 수차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류큐) 사람이 너희 나라(조선)로 표류해 갈 때마다 너희 나라에서는 항상 이들을 죽여 송환해 주지 않는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죽어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헤아릴 수조차 없다. 그러나 우리는 너희 나라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구조하여 보호해서 송환하고 있다.” 이 말을 들은 조선 표류민들은 “수치스러워서 말조차 나오지 않았다.”고 답한 것이다.¹³⁾

북경의 옥하관에서 조선 표류민들이 조사에 답한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이들 표류민은 서울로 송환된 다음, 다시 備邊司에서 상황 청취 조사를 받았다. 그 調書가 『備邊司謄錄』 英祖 4년 4월 5일에 실려 있다. 그러나 표류민들은 서울에 돌아가서 조사를 받을 때 그 일을 입 밖에서 내서는 안 된다는 주의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이를 기록으로 남겨서는 안 된다는 비변사의 판단이었는지, 이에 대한 공적인 備邊은 남아 있지 않다. 『承政院日記』 4월 6일에도 비변사에서 이 당시 표류민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해 올린 기록만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당연하겠지만 류큐인이 표류민들에게 했던 말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국가의 공적 기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류큐인들이 당시 표류민들에게 했던 말은 황당무계하다고 하여 그냥 무시해 버릴 수 없는, 나름의 무게감은 있다. 왜냐하면 첫째, 류큐에 표류해 온 자가 제주의 주민이고, 지금까지 조선-류큐 표류민 연구에 따르면, 류큐인이 조선에 표류해 온 경우, 제주도 혹은 그 주변의 작은 섬에 표류해 온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

13) 姜浩溥, 『桑蓬錄』 권8, 『燕行錄選集補遺』 上,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8, 639~640면下, “二月十二日癸巳, 禮部移文于館所, 移送濟州漂海人孫應星等九名. ……(漂海人孫應星等) 又言, 琉球人每語渠輩曰, 我國每漂到汝國, 則汝國輒殺之不送. 前後死而不還者, 不知爲幾人, 而我等則不忍效汝國, 若是撫恤以送云. 又言, 今論天下之强大, 則朝鮮當爲中原之亞, 而若論禮義, 則朝鮮當爲首云.”

다.14) 좁은 제주도에서 일어난 일이고, 게다가 송환된 제주 표류민들은 海運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류큐 표류민에게 당시까지 어떠한 처우를 해 왔는지,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그들이 조선에 표류해 온 류큐인을 죽였다는 비난을 받고 “수치스러워서 말조차 나오지 않았다.”는 말을 하였다. 그들이 류큐 표류민의 죽음에 대해 전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면, 다시 말해 “冤罪”이며 결백하다면, 수치스러울 필요가 없으니 즉각 항변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둘째, 이 역시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조선측이 류큐인을 송환한 사례는 1612년 사례부터 1790년 사례에 이르기까지, 약 180년 동안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찍이 류큐인의 조선 漂着에 대해 연표를 작성한 연구자들은, 淸朝가 1684년(康熙 23년), 중국을 경유해 표착민을 송환하라는 辭命을 발한 이후에도, 1790년까지 류큐인의 조선 표착 기록이 장기간에 걸쳐 발견되지 않는 것은 커다란 의문이며, 이렇게 오랫동안 류큐인의 조선 표착이 없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하였다.15) 북경 옥하관에서 류큐에 표류하였다가 송환되어 온 제주 백성이 심문에 답을 한 것은 1728년, 다시 말해 장기간에 걸쳐 류큐인이 조선에 표착하였다는 기록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그 한 가운데 자리한 시대였다. 이러한 사실과 송환된 제주 표류민의 말은 꼭 들어 맞는다.

V. 맺음말

朝鮮 燕行錄이라는 史料群은 동아시아에서 조선이 차지한 위치를 살펴보는 데에 더할 나위 없는 사료이다. 이 사료는 지식 정보로서, “류큐인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정보를 우리에게 전해준다.

14) 小林茂·松原孝俊 編, 「朝鮮から琉球へ、琉球から朝鮮への漂流年表」, 『漂流・漂着からみた環東シナ海の国際交流』, 科學研究費 補助金 研究成果 報告書, 福岡: 九州大學 大學院 比較社會文化研究科, 1997, 88~94면.

15) 小林茂·松原孝俊 編, 앞의 자료, 70면.

이러한 연행록 등 18세기 前半에 기록된 몇몇 조선측 사료는 당시 朝鮮 使節과 琉球 使節이 중국 북경에서 어떻게 접촉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마치 오늘날 영화를 보는 듯, 우리에게 생생한 정경을 전해준다. 이와 같은 사료를 통해 부상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뒤틀린 조선·류큐 관계이다. 양국 모두 표면적으로는 서로 비슷한 朝貢國이자 冊封國이었다. 淸朝가 당시 특별히 勅使를 파견해 책봉한 나라는 安南[越南]을 포함해 불과 3개 국가뿐이었는데, 그 가운데 2개 국가가 여기서 문제가 되는 조선과 류큐였다.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뒤틀린 양국 관계는 어떤 원인으로 생겼으며 또한 어떤 원인으로 인해 오랫동안 지속된 것일까?

1717년에 조선 정부에서 제주 표류민을 송환해 준 류큐에 咨文을 보낼지 여부를 논의하였다는 것, 그러나 결과적으로 조선 국왕 숙종은 “뜻밖의 걱정거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자문을 보내야 한다는 제안을 채용하지 않았음을 이미 언급하였다. 이 “뜻밖의 걱정거리”가 청조에 대한 배려였다고는,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통해 볼 때, 그랬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우리는 1724년, 琉球 正使와 副使가 매우 예외적이기는 하나, 갑자기 조선 사절의 숙소인 玉河館을 방문한 사실, 혹은 방문할 수 있었던 사실 속에서, 당시 청조는 조선과 류큐가 접촉하는 일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고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선이 류큐에 咨文을 보내고자 한다고 신청하였더라도 “북경의 禮部 역시 비난을 하며 반대할 리는 없을 것이다.”라는 閔鎮厚의 판단에 손을 들어 줘야 할 것이다.

뒤틀린 양국 관계는, 조선측이 북경에서 류큐와 공식적으로 접촉하는 일을 매우 완강하게 피했던 데 반해, 류큐측은 오히려 조선과 한층 깊은 관계를 맺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조선은 조선 나름대로 독자적인 외교를 모색하고, 류큐 역시 류큐 나름대로 독자적인 외교를 모색하였을 것이다. 우리는 1724년에 옥하관에서 있었던 양국 사절의 접촉과 그 당시의 대응을,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뒤틀린 양국의 관계는 1728년에 있었던 양국 사절의 접촉에서도 드러난다. 이 당시의 접촉을 자세하게 기록한 姜浩溥가, 자신은 이렇다 할 관직이 없는 연행사의 수행원이지만 류큐 숙소를 방문하는 것을 “나를 낮추는 듯한 기분

이 들었다.”고 느낀 점, 그래서 방문을 그만두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그는 庶子 출신이라고 한다.¹⁶⁾ 서자란 庶孽이라고도 불리며, 조선에서는 양반 계급이면서 심한 차별을 받았다. 그런 그가 “나를 낮추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류큐측 숙소였던 三官廟의 提督조차 조선 역관이 방문의 뜻을 알리자, 이에 “그대들이 스스로 곱혀 入見할 필요는 없다.”고 제지한 것은 더욱 흥미롭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류큐가 조선 및 중국으로부터 철저하게 홀대를 받았다는 점이다.

중국, 조선 양측의 철저한 류큐 멸시는 이 후 李鼎元이 琉球 冊封使로 류큐를 다녀온 뒤, 1801년에 조선 연행사의 일원이었던 柳得恭과 나는 필담에서도 드러난다.¹⁷⁾ 이 필담에 드러난 그들의 류큐에 대한 냉담한 시선은 일치를 보인다. 류큐는 청조의 조공국이자 책봉국이므로 清朝人이 이를 경시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할 수 있다. 또한 조선에서는 일찍이 류큐에서 조선에 信使[통신사]를 보내온 것을 “入貢해 왔다.”고 생각하였다. ‘조공국’이었던 나라 백성을 경시하는 것은 어쩌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1728년에 강호부나 제독이 보여준 류큐에 대한 철저한 멸시는, 과연 류큐가 일본에 병합되기 이전부터 그랬던 것일까?

양국 관계의 뒤틀림은 표류민의 송환에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류큐측은 일본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게 된 1609년 이후에도, 처음에는 일본을 경유하여, 이어서 중국을 경유하여 몇 차례 조선 표류민을 송환하였다. 그런데 조선측은 국교가 있었던 1612년에 류큐인 표류민을 송환한 이후, 남겨진 기록으로 볼 때 약 180년 동안이나 송환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뒤틀림은 조선측이 류큐와 국교를 맺지 않겠다고 완강한 데 반해, 류큐측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조선과 관계를 맺고자 하였다는 점과 서로 통하는 점이 있다.

일본의 학계에서는 지금까지 종종 전근대에 “일본은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에서 이탈해 있었다.”고 지적해 왔다. 그러나 조선·류큐 양국 사절의 북경에

16) 이지양, 「解題」, 『桑蓬錄』 권8, 『燕行錄選集補遺』 上,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8, 23면.

17) 村尾進, 「『球雅』の行方—李鼎元の『琉球譯』と清朝考證學」, 『東洋史研究』 59-1, 東洋史研究會, 2000, 176면.

서의 접촉을 포함해, 앞에서 서술하였듯이, 여러 양상으로 나타나는 양국 관계의 뒤틀림이 조선·류큐 그리고 중국이라는 3국의 관계에서 생겨난 것으로서,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감춰진 '일본'이라는 존재를 빼놓고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 아니, 일본이 '감춰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른바 책봉 체제론의 입장이나 청조측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 가령 당시 조선을 중심으로 본다면, 결코 일본은 '감춰져' 있지 않다. 1636년 이후, 조선은 일본과 정식으로 국교를 재개하여 通信하는 나라임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조선·류큐 양국의 국교 두절이라는 사태를 그 종주국인 중국을 포함한 3국의 관계에서만 생각하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적어도 일본을 포함한 4개국의 국제 구조 속에서 살펴봄으로써, 비로소 이해가 가능해 질 것이다. 당시 이들 4개국을 마치 모자이크를 구성하는 조각 하나 하나처럼, 어느 두 조각은 전혀 연결되지 않으나, 각각의 조각이 다른 조각과 연결됨으로써 하나의 안정된 하나의 구도를 이루어 전체를 그려갔다. 각 국은 각각 당시, 이들 동아시아 4개국의 국제 질서를 성립시키기 위한 필수 契機였다.

또한 최근, 한국에서는 연행록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는 17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한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지식 정보가 유통되었는지를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사료군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 정보는 각국의 외교나 국제 구조에 크게 규제받는 것이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연구자들이 다루어 온 개념이나 모델에 안이하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감성을 가지고 이와 같은 사료군을 읽어 나가야 할 것이다.

투고일: 2009.6.15

심사일: 2009.7.30

게재확정일: 2009.8.12

• 참고문헌

- 『同文彙考』 原編 卷66, 漂民, 국사편찬위원회, 『韓國史料叢書』 24, 1978, 1256면上
- 『備邊司謄錄』
- 『承政院日記』
- 姜浩溥, 『桑蓬錄』 권8, 『燕行錄選集補遺』 上,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8
- 權時亨, 『石湍燕記』, 林基中 編, 『燕行錄全集』 91, 동국대 출판부, 2001
- 金尙奎, 『啓下』,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
- 宋相琦, 『玉吾齋集』, 『韓國文集叢刊』 171, 민족문화추진회, 418면
- 俞彥鎬, 『燕行錄』, 『燕行錄選集』 下,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62, 1176면
- 李商鳳, 『北轅錄』, 『燕行錄選集 補遺』 上,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8, 845면
- 黃晷, 「癸卯燕行錄」, 『燕行錄全集』 37, 동국대 출판부, 280면
- 『歷代寶案』 譯註本 3冊, 沖繩縣 南風原町, 沖繩縣教育委員會, 1998
- 『清代中琉關係檔案五編』, 北京: 中國檔案出版社, 2002, 35면
- 夫馬進, 「一六〇九年, 日本の琉球併合以降における中國・朝鮮の對琉球外交—東アジア四國における冊封, 通信そして杜絶」, 『朝鮮史研究會論文集』 46, 朝鮮史研究會, 2008; 「1609년 일본의 류큐 합병 이후 중국, 조선의 對 류큐 외교—동아시아 4국의 책봉, 통신 그리고 두절」, 『梨花史學研究』 37, 梨花史學研究所, 2008
- 小林茂·松原孝俊 編, 「朝鮮から琉球へ、琉球から朝鮮への漂流年表」, 『漂流・漂着からみた環東シナ海の國際交流』, 科學研究費 補助金 研究成果 報告書, 福岡: 九州大學大學院 比較社會文化研究科, 1997, 10·88~94면
- 이지양, 「解題」, 『桑蓬錄』 권8, 『燕行錄選集補遺』 上,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8, 23면
- 村尾進, 「『球雅』の行方—李鼎元の『琉球譯』と清朝考證學」, 『東洋史研究』 59-1, 東洋史研究會, 2000, 176면

Diplomatic stopage, Chosun · Ryukyu both countries' diplomatic missions contacted in Beijing

Fuma, Susumu

Diplomatic Missions between Chosun and Ryukyu had been stopped from middle of 17th century till Meiji. This thesis is researched how contacted both countries tribute emissaries towards China in Beijing. I focused to two books which are *Kyeha* written by Kim sang-kyu and *Sangbongrok* written by Kang ho-boo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Through the first book, Chosun had recognized that they didn't have the diplomatic friendship and exchange with Ryukyu. And I could confirm that Chosun didn't want any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Ryukyu even if Ryukyu wanted it.

I study about the repatriation of drifted Jeju islanders in 1728, through the second book. I pointed that a dialogue shown up in the investigating process between drifted islanders and residents of Ryukyu had had some problems. It was that Ryukyu repatriated the drifted islanders positively but Chosun didn't repatriate drifted Ryukyu residents.

I confirmed that it must consider relationships not only between Chosun, Ryukyu and China but including Japan also in order to understand the problems above.

Key words : Chosun, Ryukyu, tribute emissaries, Beijing, *Kyeha*, *Sangbongrok*